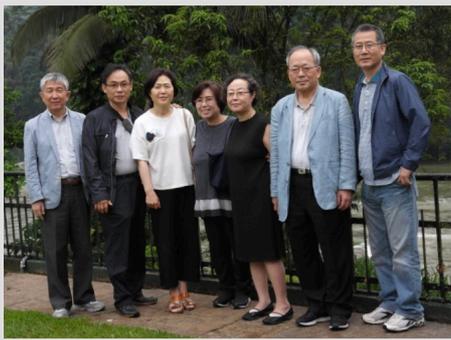




스물한번째 이야기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올 여름 유난하던 더위가 살짝 주춤했던 지난 8월 19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양재 BEE아웃리치 팀이 스리랑카의 해튼과 누와라엘리아에 다녀왔다.

정대서 장로님과 이해정 권사님 부부, 이정환 집사님과 이동희 권사님 부부, 이상도 집사님과 홍경선 집사님 부부, 김영관 집사님! 이렇게 일곱 명이 조출하게 팀을 이루고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도로 구하며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중량은 제한되어 있고 선물로 가져가고 싶은 물품은 많다 보니 저울을 열댓번도 더 달아보는 가운데 남편과 함께 딸의 유학시절을 추억하며 짐을 꾸렸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인천 공항을 출발해 경유지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정대서 장로님 설교로 주일예배를 드리고 밤늦게 공항에 도착했다. 박영근 선교사님의 안내로 콜롬보에 있는 올네이션스 인터내셔널스쿨 게스트하우스에서 눈을 잠깐 붙이고 9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결혼 강의를 참관하기 위해 새벽에 해튼으로 출발하였다. 꼬불꼬불 산길을 5시간 동안 차를 타고 도착한 해튼은 4개월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날씨가 축축하고 습하고 으슬으슬하였다.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을 가진 ‘스리랑카’는 자연이 참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450년이나 여러 나라들의 오랜 식민 지배와 26년간의 내전으로 국민들의 삶은 전혀 아름답지 않으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1위인

나라이다. 아직도 정부(싱할라족)는 반군(타밀족)을 견제하느라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뒷전인 듯하였다. 또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물가는 우리가 느끼기에도 비싸게 느껴졌다. 언어는 싱할라어, 타밀어와 영어를 두루 사용하여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되는 통역이 스리랑카에게는 일상이었다. 그래서 주일예배에서도 자국민끼리 통역이 이루어지거나 강의 중에도 자기들끼리 못 알아듣는 옆 사람을 위해 통역을 하는 상당히 생소한 풍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찬양을 참으로 은혜롭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까망고 깊은 예쁜 눈을 가졌고 어릴 때는 몸매가 정말 예쁘고 외국인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호의적이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많은 나라이다.



이동희 권사님의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품격 있는 찬양과 함께 정대서 장로님 설교로 시작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나머지 팀원들은 준비해간 간식을 예쁘게 포장해서 세미나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에 드시라고 드렸는데 아무도 안 드시고 모두 가방에 챙기셨다. 아마도 집에 가져가서 아이들 주실 듯 ㅎㅎ.

비가 주룩주룩 오는 가운데 추행란 선교사님이 준비해 주신 맛난 쌀밥을 먹고 모두 힘을 내서 오후 강의를 전념! 졸릴 때쯤 이상도 집사의 태권도 시범과 나무젓가락 격파! 아오~ 모두의 잠을 깨웠다. 저녁시간에 장로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하루 아니 몇 시간 만이라도 햇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권유하셔서 우리는 두 권사님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전혀 그칠 것 같지 않았던 비가 그치고 해가 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장로님과 권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결혼 강의, 김 집사님의 전도와 제자양육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팀원은 선교사님과 함께 금흥사역에 동참하였다. 찾았을 한 달 내내 따면 7만 원을 버는데 그 마저도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길이 막막한 60가정에 보름치 쌀과 부식을 전달하는 일이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이올린 연주도 들려 드렸다. 얼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이 형제와 자매처럼 느껴지는 게 참 신기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 높였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주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온 산이 차밭인 그곳에서 차공장에도 가보고, 산의 능선 위에 놓여 있는 기차길을 달리는 기차도 타보고, 밤새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던 폭포도 보고, 나무가 자라기에 좋은 날씨로 인해 잘 자란 나무들을 가꾸어 놓은 식물원에도 가보고, 선교사님 댁에서 사모님이 끓여 주신 떡국과 맛난 커피도 마시고, 피터 권과 오지아 선교사님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식사 교제와 이동할 때마다 들려주신 유쾌한 박영근 선교사님의 재미있는 얘기들 등등.....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화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아침식사 1시간 전에 만나서 하는 30분 동안의 아침 체조와 미리 준비해 간 예배소서 큐티와 찬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한 스리랑카의 하루하루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라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박 선교사님과 성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멋진 추 사모님, 기본적으로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가 통용되는 곳이기에 두 번의 통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번거롭게 느껴져서 즉석에서 영어 강의로 바꾸시는 순발력과 뛰어난 영어 실력과 탁월한 리더십의 정 장로님, 강의 내내 뒤에서 기도로 남편을 도우시고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끄시는 내공이 있는 이 권사님, 차분하게 지적으로 수업을 끌어가시

고 부드러운 감성으로 중요한 순간에 감초 역할을 하시는 김 집사님, 예수님 같은 섬김의 자세와 겸손으로 회계를 감당하신 이 집사님, 멋진 바이올린 연주로 우리의 품격을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미소로 푸근함을 선사해주신 이 권사님, 큰 목소리와 열정으로 상황마다 기지를 발휘하신 이 팀장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신이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글쓴이 홍경선 집사]

BEE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BEE가 어려워 갈라디아서를 2번이나 듣고 나서 나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BEE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그 즈음에 박차홍 집사님께서 양재에서 BEE기도모임이 시작되니 한번 와보라는 권유로 양재 BEE기도모임에 참석하였다. 기도모임에서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된 삶에 감동되어 어려워도 꼭 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작년 네팔 아웃리치에 이어 올해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다녀오며 조금씩 하나님 넓고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중이다.

가족은 남편과 올 봄에 결혼한 딸과 사위,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가족은 남편과 올 봄에 결혼한 딸과 사위,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

BEE의 보석 찾기

5. 임숙민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온누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군가 TEE성경공부를 추천하여 무작정 신청했는데 앗불싸! 신청한 게 TEE가 아니라 BEE이었다. 단순한 실수로 시작한 BEE! 그러나 BEE를 하면서 오래 전에 꿈이었던 성경교사를 다시 한번 꿈꾸게 되었다. 나의 작은 실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직장에서 전산 감리, 전산 컨설팅 등 전산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BEE UI위원회에서 전산 및 홈페이지 관리로 섬기고 있다.

부천 온누리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고 있으며 가족은 BEE가 무서워 발을 못 딛는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때론 아들보다 나은(?) 강아지 둘과 인천에서 살고 있다.

6. BEE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가녀린 모습으로 그 많은 섬김이 가능한지 늘 궁금한 그 분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은 꼭 이 분을 만나야 한다!! 직장에서는 멋진 CEO로, BEE에서는 탁월한 인도자로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분~~ 7일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BEE 소식

1.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한가위의 둥근 달만큼 크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 그리고 결실의 열매와 감사가 가득한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깊어 가는 가을! BEE식구들이 기도가 더욱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 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땅끝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3. 양재 BEE기도모임 2주년을 맞이하여 필그림 하우스에서 9월 29일(토)-30일(일)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양재 BEE기도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양재 캠퍼스 온비아 부흥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4. 10월 1일(월) 출발한 루체 콰이어 팀이 네팔의 6곳을 두루 다니며 졸업식 및 공연 예배를 드립니다. 22명의 귀한 지체들의 선교 여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 BEE가 가을 소풍을 갑니다! 10월 20일(토) 수원 10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BEE식구들의 소소한 나눔과 맛난 만찬(?)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6. 김선 선교사님이 심장마비증세로 인해 치료를 잘 받고 이제 선교지로 귀환하십니다. 심장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더욱 힘을 내어 감사와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